PA-47

토마토의 국내외 생산 및 소비 현황과 소비트렌드 분석

구본일[1]*, 심강보[1], 김성국[1], 신명나[1], 이종기[1]

[1]국립식량과학원 재배환경과

[서론]
스마트팜을 이용한 과채류 재배면적의 증가는 향후 생산량을 큰 폭으로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팜에서 주로 재배되는 토마토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공급 확대에 대한 의사결정 및 수급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재료 및 방법]
토마토의 생산과 관련된 국내외 통계자료 및 보고서를 기반으로 주요 토마토 소비국가의 생산 및 소비동향을 조사하였다. 농진청에서 수집하고 있는 소비자 패널 조사자료를 통해 국내 소비동향을 파악하고 과채류 소비 트렌드 분석용역을 통해 외식 및 업무용 소비 트렌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국내 토마토 생산량은 기온 상승으로 출하 지역이 확대되고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소비가 확대되어 생산량도 증대되고 있다. 토마토 소비는 2000년 이후 서구화된 식습관과 토마토의 효능에 관한 관심 증대로 인하여 급격히 증가하였다.
미국은 현재 토마토 수요량의 40%를 국내 생산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다. 생산량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주산지인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에서 생산된 토마토 보다 값싼 멕시코 산 토마토의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 내 토마토 소비량은 연 평균 9.1kg 정도로 추산되며 신선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토마토 생산량은 2000년대 이후 2,000만 톤을 돌파하며 유럽과 견줄만한 토마토 생산 대국이 되었다. 중국 내 토마토의 주산지는 산동(15%)이며, 다음으로 하남(13%), 하북(11%)이 있으며 중국은 전 세계 토마토 수출국 중 수출액 기준 11위로, 2017년 기준 전 세계 토마토 수출의 2.4%를 차지하였다.
일본에서는 연간 약 150만 톤의 토마토가 소비되며, 생식용이 60만 톤, 업무용이 90만 톤으로 추정된다. 매년 수입량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며 한국산 점유율이 37.1%를 차지하고 있으나 일본 내 생산량이 매우 커 수입량의 영향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토마토에 대한 수요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럽 내 토마토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토마토 생산지역이다. 유럽 내 토마토 생산량이 가장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로 전 세계 토마토 수출액의 22.2%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시장도 가공 토마토의 공급 증가율이 신선 토마토 보다 더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저자: Tel. 031-695-0649, E-mail. kubonil@korea.kr